

# 홍도 지형 자원을 활용한 지오투어리즘

박 미 영\*

## Geotourism using the Geographical Resources on Hong Island

Park, Mi-Young\*

**요약** : 지오파크(Geopark)는 세계유산 및 생물권보전지역과 더불어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3대 보호 지역 중의 하나로, 단순한 감상 수준의 관광이 아니라 지형·지질 자원에 대한 지식을 통해 자연의 가치를 이해하고 보존·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논문에서는 지오파크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지오파크의 필요 조건인 국내 지오투어리즘 사례 지역으로 홍도 유람선 선상해설 적용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오파크 국내 도입을 제안하고자 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주민의 지형·지질 교육을 통해 자연 경관 자원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존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주요어** : 지오파크, 지오투어리즘, 지속가능한 개발

**Abstract** : There are three natural conservation systems that UNESCO assigns: World Heritage, Biosphere Reserve and Geopark. Geopark is one of three preservation zones that UNESCO conducts. In this paper I will explain the meaning of a Geopark as well as suggest that one should be set up in Korea. Geotourism is one important aspect of Geopark. Geopark's main purpose is not only for sightseeing but also conservation and understanding the value of nature through geological and geographical features. I have analyzed the local guide's interpretations from a Hongdo Island cruise tour and suggested new way of interpretation for the tour with the concept of Korean Geotourism in mind.

**Key Words** : Geopark, Geotourism, sustainable development

### 1. 서론

#### 1) 연구 목적

지오파크(Geopark)는 세계유산 및 생물권보전 지역과 더불어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3대 보호지역 중의 하나다. 1992년 리오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되고 2002년 요하네스버그의 지속가능발전 세계 정상회의(WSSD)에서 재확인된 의제 21은 환경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지오파크를 통해 지형·지질 유산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오파크는 기존의 공원제도가 갖고 있는 과도한 행위제한 등의 약점을 극복하며 자연환경 보전·보호정책에 대한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고, 국내·외 관광객 증대로 지역경제 발전 등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더불어 지오파크는 지오투어

리즘을 활성화시켜서 그 지역의 문화와 자연유산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가져오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 제주도의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고, 지정유산으로는 한라산 천연보호 구역, 성산 일출봉 응회구, 거문오름 용암동굴계가 있다. 또한 남해안 백악기 공룡 발자국 화석해안이 세계자연유산으로 추진되면서 세계자연유산은 일반인들에게도 관심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세계자연유산과는 달리 1990년대에 시작된 지오파크의 경우는 국내에 도입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지오파크에 대한 정의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지역 중 천연의 자연경관을 가진 홍도 유람선의 선상 해설을 분석하여 지오투어리즘적 관점에서 새로운 선상 해설을 제안함으로써 지오투어리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해 보았다.

\*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박사과정 수료(Ph. D. Candidate, Dept. of Geography, Sungshin Women's University) (pmy4010@naver.com)

## 2) 연구 방법 및 내용

연구 방법은 지역 주민 특히 유람선 선장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홍도 유람선의 선상해설을 녹취하였다. 선상해설 가운데 홍도의 지형·지질 자원이 언급된 설명이 차지하는 시간의 비율과 내용분량을 분석하였다. 또한 지형·지질 자원 설명 시 용어 및 텍스트의 과학적 정확성과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홍도의 33경중 1경 남문, 2경 심금리굴, 3경 석화굴, 4경 탑섬, 5경 만물상, 6경 슬픈녀, 7경 부부담, 8경 독립문바위, 9경 거북바위, 10경 공작새바위 등 대표적인 10경과 그 외의 소규모적인 경관으로 기동바위, 도승바위, 곱바위, 물개바위, 시루떡바위, 유방바위 등의 지형·지질 자원을 이용한 선상해설 내용을 지오투어리즘적 해설로 재구성 하였다. 또한 국내·외 지오파크 및 지오투어리즘에 관련된 문헌연구를 하였으며, 실제 홍도 답사 전에 홍도 지형 관련 문헌·홈페이지·여행안내 서적 등에 기재된 내용들을 검토하였다.

현재 홍도 유람선 선상해설은 단순히 독특한 기암괴석의 생김새에 대한 흥미 위주의 설명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지오투어리즘적 관점에서 각종 경관을 분석하여 탐방객들에게 홍도 지형·지질의 형성과정과 자연자원 보존 및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이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단순관광에서 지형자원을 활용한 지오투어리즘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 3) 연구 지역 개관

홍도는 매년 50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드는 아름다운 섬이다. 홍도는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에 속하며, 홍도 1구와 홍도 2구등 2개의 마을로 구성된 지역이다. 총 면적은 6.87km<sup>2</sup>이며, 동서로 2.4km, 남북으로는 6.4km, 해안선 길이는 20.8km이다. 동경 125°12', 북위 34°41'에 위치하며, 목포항에서 서남쪽으로 115km, 흑산도에서는 22km 떨어져 있다. 홍도는 특히 1965년 4월 7일에 도서전체가 천연기념물 170호로 지정되었다(고의장, 1998).

다도해 지역은 약 8,000만 년 전에 대규모의 지

각 운동에 의하여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수많은 도서가 분포하게 되었는데 도서들의 암석 80% 이상이 화성암이고 나머지 20%는 사암 등 퇴적암기원의 암석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신생대 제4기 플라이스토세 기간에 있었던 빙하기와 간빙기의 영향을 받았던 다도해 지역은 마지막 빙하기인 뷔름빙하기 때에는 해수면이 적어도 80~100m 정도가 하강함으로써 도서와 주변해역이 육지화 하였다가 홀로세 중반인 약 7,000년 전에 오늘날의 다도해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홍성조·유효상, 1997)

홍도의 지질은 사암과 규암의 해저퇴적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육상기원의 풍화물질인 석영질 입자들이 해저에 퇴적되어 사암이 형성된 이후 압력과 온도의 상승에 따라 규암층이 생성되었다. 홍도 지역의 규암은 구성광물의 조성에 따라 색상의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나 하부 자색층, 하부 백색층, 상부 자색층 및 상부 백색층으로 되어 있고 사암과 규암이 풍화에 강하기 때문에 해안선 주변은 경사가 급하게 나타나고 있다. 홍도의 지형은 육상기원의 사암과 규암이 조산운동을 받아 섬전체가 대규모의 배사 구조를 이루고 있다.

홍도는 수평으로 된 사암의 층리가 나타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배사구조를 만든 격심한 지각운동의 결과로 층리와 퇴적면이 기울어져 뒤집혀 있거나 수직으로 분포하는 곳이 많으며 해상에 솟아 있는 기암의 절경과 파도의 침식에 따라 형성된 해식애(Sea Cliff), 해식동굴(Sea Cave) 및 시스택(Sea Stack), 시아치(Sea Arch) 등이 수려한 자연경관을 나타내고 있다.

## 2. 이론적 배경

1990년대에 개념화되어오면서 세계 중요 지질 및 지형경관을 대상으로 지정되는 지오파크는 2010년 현재 전 세계 19개국에 64곳이 지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의 경우 17개의 국가 지오파크 중 3개가 세계지오파크로 인증을 받았으며, 중국은 22개의 세계지오파크를 운영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주도가 세계지오파크에 가입 신청을 하여 2010년 7월 27일~29일 현장 실사를 받았고 2010년 10월 4일 그리스 제9차 유럽 지질 공원 총회에서 세계지오파크로 결정되었다. 이로

써 제주도는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2007년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이어 세계지질공원 인증까지 획득해 세계최초 유네스코의 자연환경 분야 3관왕이 되었다(한라일보, 2010).

UNESCO에서 지정한 지오파크는 다양한 지형·지질 장소 혹은 지질유산이 여러 개 포함된 지역으로서 보호·교육 지속가능한 개발 등의 총체적 개념이 적용되는 지역을 말한다. 지오파크는 지형·지질학적 중요성과 함께 희귀성과 아름다움이 있어서 보호되어야 하는 곳이며, 그 지역의 지형·지질학적 현상과 기원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이다. 또한 비교적 높은 과학적 수준과 함께 문화적 요소 그리고 여행·관광·휴양지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형·지질유산의 주요한 보호구역으로서 지리학의 대중화에 기반이 될 수 있다(www.globalgeopark.org). 따라서 지오파크 도입을 위해서는 국내의 가치 있는 지형·지질 자원을 선정하여 보존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지오투어리즘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세계 각국이 지오파크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지오파크는 기존의 공원제도가 갖고 있는 과도한 행위 제한 등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으며, 또한 자연환경 보전·보호정책에 대한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고, 국내·외 관광객 증대로 지역 경제 발전 등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이다(이수재 등, 2003).

국내 지오파크에 관한 연구는 지질학분야와 지형학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 지질학 분야에서 지오파크에 관한 연구는 이수재 외(2003)의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의 대상설정에 관한연구」가 있다. 위 연구는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의 개념 설정방안, 가치 평가 방안, 국외 지질유산 운영사례, 지질 유산 관리 방안 제안에 중점을 둔 것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하지는 않았다. 김유봉 외(2005)의 「UNESCO 지정 World Geopark 선정을 위한 National Geopark 개발 연구」는 20개 국립공원의 지질학적 조사 및 지질공원 등급 설정, 지질공원 추진 최적지 선정에 관한 것이다.

오대산 국립공원의 지질 및 지형경관자원 조사를 통한 관광지질학적 가치 증진: 지구과학의 대중적 이해(허철호, 2005)에서 오대산 국립공원일대의 지질·지형경관자원을 조사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고, 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지질·지

형 자원을 선정하여 보존·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관광지질학 활성화를 위한 지질 및 지형경관 자원 개발에 관한 연구-태안해안국립공원을 중심으로(허철호·최상훈, 2007)에서 관광지질학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질 관광 대상지역의 다양성 제고를 촉진하고, 태안해안국립공원의 지질·지형 자원을 분석하고 활용방안을 연구하였다.

지형학 분야에서는 지오파크 도입의 필요 조건인 지오투어리즘에 대한 연구로 지오투어리즘(Geo-tourism)을 위한 대구 앞산 활용방안(전영권, 2005), 지오투어리즘(Geo-tourism)의 북한산 국립공원 적용사례 연구(박미영, 2007), 팔공산수태골의 지형 자원을 활용한 지오투어리즘(한승희, 2007), 지오투어리즘을 적용한 주왕산국립공원의 자연관찰로 개발(정필모, 2009), 지오투어리즘을 적용한 지형관찰 학습길 활성화방안(안송이, 2009)에 대한 연구가 있다. 지오파크에 관한 연구로는 DMZ와 그 인접 지역의 지형경관 조사와 활용방안(김창환, 2009), 지오파크와 지리학의 역할(김창환, 2010)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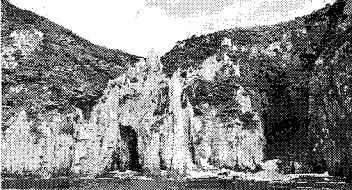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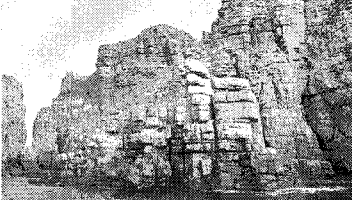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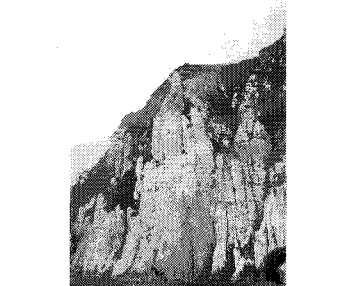

지질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지오투어리즘 연구는 보전 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자원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분석했으며, 지형학분야에서는 주로 국립공원이나 산지 지형을 중심으로 지오투어리즘 코스개발과 자연해설관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연구 되지 않았던 해안 지형과 지역주민에 의해 제공되는 선상해설 중심으로 지오투어리즘적 접근을 시도한 첫 사례로 국내의 지오투어리즘 도입을 위한 시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 3. 홍도의 10경 해설 여건 분석 및 평가

#### 1) 홍도 여행안내 책자 검토

홍도의 지형자원에 대한 설명은 신안군 문화관광과에서 출판한 『섬·섬·섬·천사(1004)의 섬 신안 여행』 책자에 홍도 10경에 대하여 사진과 함께 각각의 경관 해설과 같이 수록하고 있다. 내용을 직접적으로 인용하였지만 현황을 그대로 밝히기 위하여 가능한 원문의 내용을 손상하지 않고 정리하였다.

표 1. 홍도 10경 해설자료: 『섬·섬·섬·천사(1004)의 섬 신안 여행』 안내

	<p><b>홍도 제1경 - 남문바위</b>          홍도의 남쪽에 위치한 바위섬에 구멍이 뚫려 소형선박이 왕래할 수 있는 석문으로 홍도의 관문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석문을 지나간 사람은 일 년 내내 더위를 먹지 않으며, 재앙을 없애고 소원이 성취되며 행운을 얻게 된다는 전설이 있다.</p>
	<p><b>홍도 제2경 - 실금리굴</b>          옛날 유배 온 선비가 속세를 떠나 아름다운 선경을 찾던 중 망망대해가 바라보이고 주변에는 기화요초가 만발하고 풍우를 피할 수 있는 넓은 동굴을 찾아냈는데, 그는 여기서 일생동안 가야금을 타고 여생을 즐겼다고 한다.</p>
	<p><b>홍도 제3경 - 석화굴</b>          이 굴에 들어가면 옆 동굴로 통할 수 있는 구멍이 있으며 석양에 멀리서 고깃배의 어부가 이 굴을 바라보면 굴속에서 햇살이 반사되어 오색찬란한 꽃이 핀 것처럼 보이며 일명 꽃 동굴이라고도 한다.</p>
	<p><b>홍도 제4경 - 탐섬</b>          해아릴 수 없이 많은 탐의 형태로 이루어진 섬으로 섬의 상단에는 편히 휴식할 수 있는 넓은 평지가 있고 낚시터로서도 아주 좋은 곳이다.</p>
	<p><b>홍도 제5경 - 만물상</b>          아침, 낮, 저녁 각기 다른 색깔 또는 다른 모습으로 변한다. 아주 옛날 못된 해적들이 있어 어느 도사가 이들에게 아름다운 마음을 불어 넣어 주기 위해 만가지 물형을 만들었다는 전설이 있다.</p>
	<p><b>홍도 제6경 - 슬픈여</b>          아주 옛날 부부가 배를 타고 물으로 나갔다가 돌풍을 만나 짐을 실고 오던 배가 큰 파도에 파선되고 말았다. 이를 본 일곱 남매는 부모님을 부르면서 물살이 센 바다로 걸어 들어가 그대로 굳어 바위로 변해버렸다. 지금도 작은 일곱 남매의 가련한 넋이 부모님을 부르고 있는 것처럼 보여 슬픈여 또는 일곱 남매바위라 불리고 있다.</p>

	<p><b>홍도 제7경 - 수중자연부부탑</b>          아주 옛날에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부부가 어떤 날 꿈에 신령이 나타나 이 탑에 축원하면 아들을 얻으리라고 현몽하여 아들을 얻게 된 전설이 있다. 남근바위 또는 서방바위로도 불리고 있다.</p>
	<p><b>홍도 제8경 - 독립문바위</b>          옛날에는 중국으로 가는 배들이 드나드는 북문이며, 그 모양이 서울에 있는 독립문과 닮아서 3.1만세 이후 독립문으로 불리고 있다.</p>
	<p><b>홍도 제9경 - 거북바위</b>          홍도의 신당에는 용왕이 모셔져 있는데 매년 정월 초사흘날 당제를 지내며 질 허수아비로 용왕의 신체를 만들어 새로운 복을 가져 오도록 바다에 띄워 수궁으로 보내고 있다. 거북이는 홍도를 수호하는 사자이다.</p>
	<p><b>홍도 제10경 - 공작새바위</b>          세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 바위로 우측에서 보면 모자상 같고 정면에서 보면 공작새 같으며 좌측에서 보면 말이 하늘로 치솟는 형상을 지닌 천마상과 같다.</p>

홍도는 섬 주변의 해안 지형을 관광자원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해안 지형에 대한 설명보다는 암석의 형태(shape)와 풍수를 바탕으로 전설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여가 시간의 증대로 관광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탐방객들의 지식수준이 향상되면서 허구적인 전설이나 암석의 외형에 의존하기보다는 과학적으로 정확한 지식 전달이 가능한 홍도 자연 경

관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홍도 10경에 붙여진 이름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볼 때 그 지역의 고유성을 나타내 주지 못한다.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http://www.visitkorea.or.kr>)에서 홍도 10경 중 하나인 독립문바위 검색 결과 충남 태안군 신진도의 가의도,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의 방축로 마을, 울릉도 동도의 동단부도 독립문바위로 불리고 있었다. 다시



출처: <http://korean.visitkorea.or.kr>

그림 1. 독립문 관련 사이트 검색 결과

말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시아치를 독립문바위 또는 구멍바위로 부르고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시스택을 칼바위, 돛대바위 또는 촛대바위라고 부르며, 동해에만 해도 여러 개의 촛대바위가 있다. 강원 고성군 간성읍 탐동리의 촛대바위, 강원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의 촛대바위, 강원 고성군 현내면 마달리의 촛대바위, 강원 동해시 추암동의 촛대바위, 강원 삼척시 근덕면 부남리의 촛대바위, 경북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의 촛대바위, 경북 울진군 온정면 광포리의 촛대바위, 경북 울진군 온정면 외선미리의 촛대바위 등이 있다. 이렇게 붙여진 이름은 홍도 외 다른 지역의 시아치나 시스택에서도 고유명사처럼 사용된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외국의 경우에는 그 지형만을 대표하는 고유명사로서의 지명들이 존재한다. 그 예로 호주의 산호초로 둘러싸인 로드 하우스 섬(Lord Howe Island)은 지하 2,000m 화산활동에 의해 생성된 섬으로서 1982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된 화산섬이다. 로드 하우스 섬(Lord Howesland)에는 ‘볼스 피라미드(Ball’s Pyramid)’라고 불리는 바위들이 뾰족하게 솟아 올라와 있는데 이 뾰족 바위(Sea stack)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해상 바위이다. 이 바위 이름의 유래는 Henry Lidgbird Ball 소위가 1788년 Lord Howe 섬을 처음 발견하였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Ball’s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형태를 고려해 Pyramid라고 하여 ‘볼스 피라미드(Ball’s Pyramid)’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또 한 예로 Lot’s Wife를 들 수 있다. Lot’s Wife는 구약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로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렸다는 데에서 유래하였

다. 사해를 끼고 있는 이스라엘 소돔산에 있는 지형으로 형태와 위치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 암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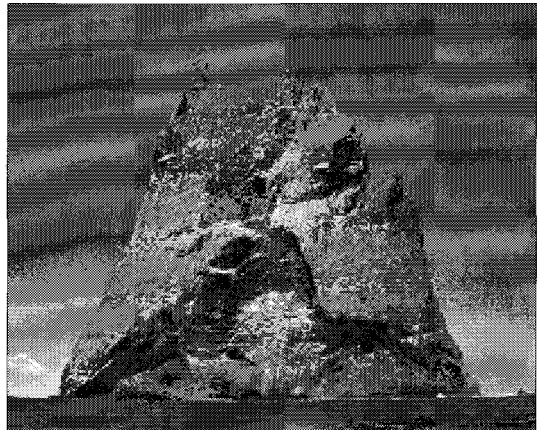


그림 2. Ball’s Pyram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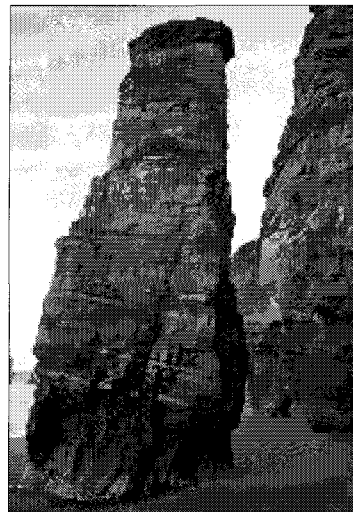


그림 3. Lot’s Wife

의 염분과 석고는 이 지역의 동북부 해안의 지질 구조를 지명이 반영하면서 지질학적 형성과정을 실질적으로 설명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즉 이 지역이 전반적으로 암석에 염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각력 암화 작용(brecciation)이 일어나 용해와 침식으로 인해 오늘날과 같은 절벽이 형성되었다. 즉, Lot's Wife는 지명을 통해 지형 주변의 구성 물질들을 집약하게 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호주의 Ball's Pyramid나 이스라엘의 Lot's Wife 모두 시스택이지만, 섬 발견자의 이름을 기념하거나, 주변 퇴적 지형을 예측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이름을 부여하여 지형자원의 차별성을 가져왔다. 우리나라도 경관 이름 하나하나에도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거나 기념할 만한 이름을 붙여서 고유성을 가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2) 홍도 유람선 선상해설 분석

홍도 일주 유람선은 오전 7시 30분과 오후 12시 30분 하루에 두 차례 출항한다. 홍도 33경 해상관광코스를 관람하는데 소요시간은 2시간 30분이지만 비수수기에는 코스를 ①부터 관람하여 1시간 30분정도 소요되며 홍도 10경 관람이 주가 된다.

홍도33경 해상관광코스

① 도승바위→남문→탕건바위→병풍바위→실금리굴→흔들바위→칼바위→무지개바위→제비바위→돛바위→기동바위→삼돛대바위→원숭이바위→시루떡바위→용소바위→대문바위→좌불상→② 해수욕장→거북바위→만물상→자연탐 →부부탐→석화굴→등대→독립문바위→탐섬→대풍굴→종바위→두리미바위 →슬픈너→공작새바위→홍어굴→노적산→①  
 ※ 비수기는 ①번부터, 성수기는 ②번부터 관람



그림 4. 홍도 유람선 해상관광 지도

표 2. 홍도 유람선 선상해설

이곳 홍도는 목포를 기점으로 해서 115km, 72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부터 살았는가 하면, 조선 숙종 4년, 1675년에 제주 고씨가 350년 전에 귀향을 오면서 부터입니다. 당나라와 신라가 교역을 할 때 바람을 기다렸다하여 대풍도라 부르다가 일제시대 때는 매화꽃을 닮았다 해서 매화도라 불리고, 해방된 후에는 온 섬이 붉은색을 띠었다고 해서 붉을 홍(紅) 섬 도(島)를 써서 홍도라 불렀습니다. 떨어지는 일몰이 너무나 빨개서 홍도라 부릅니다. 장마철이 끝나고 7월 25일 이후에 오시면 기가 막힌 일몰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홍도의 면적은 여의도의 두 배 180만 평이며, 해안선의 거리가 20.8km입니다. 초등학교 위에서 마을을 보면 마을이 조그마하며, 주민은 500명이 삽니다. 홍도는 행정구역상으로 전라남도 흑산면 홍도1구 가구 수는 131가구 입니다. 왜 이리 주민이 많이 사는가? 공기 좋고, 경치 좋고, 먹거리가 풍부하여 사람이 살만한 곳입니다.

표 3. 홍도 유람선 선상해설

홍도는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름다운 홍갈색을 자랑하는 기암절벽 해변이 있어 밖에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특징은 소나무가 허벌나게 깔려 있습니다. 세 번째 깨끗한 바닷물은 선상위에서 20m정도 까지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물속에 들어가면 기암절벽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 다이빙하기도 좋습니다.

홍도 10경을 중심으로 한 유람선 선상 해설은 약 50분 정도 소요되며 주로 선주의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와 입담으로 시작된다. 해설의 도입부분은 홍도의 지명 유래와 처음에 사람이 살게 된 역사를 설명한다. 그리고 홍도의 인문적 환경으로

홍도의 면적, 홍도 주민 수와 생업에 대한 설명으로 약 7분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도입 부분의 유람선 선상 해설을 표준어로 아래와 같이 재구성하였다.

홍도의 지형·지질에 관련된 특징에 대해서는 4

표 4. 홍도 유람선 선상해설

구분	기압괴석 명칭	선상해설 내용
1	거북바위	3시 방향에 거북이 봤어요? 원발 나오고 오른발 나오고 홍도를 지켜 주고 있는 수호신입니다.
2	보석동굴	3시 방향의 보석동굴 해가 석양 노을에 눈이 부실 듯이 아름다운 동굴이죠. 2시 방향의 절벽을 보시면 바위에 꽃이 피서 석꽃바위, 노란꽃은 원추리꽃, 빨간 건 나리꽃입니다.
3	탑섬	22층 돌탑인데 조물주가 쌓아 놓은 탑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의 한 가지 소원을 빌어보시면 들어줄 것입니다. 심한 태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탑이죠! 옛날에 총각 처녀가 향수에 젖어 탑을 하나 돌씩 쌓아서 올렸다고 합니다.
4	자연수중부부탑	2시 방향에 부부 탑이라고 합니다. 거시기 머시기 바위라고도 합니다.
5	콜라병바위	소나무꼭 위에 바위가 짝 뚫려 그 길다란 동굴에 콜라병 바위가 있습니다. 저 돌은 언젠가는 무너져 비바람에 깎여질 것입니다.
6	석화굴	홍도에서 유일하게 살아 있는 돌멍이 종유석이죠. 해마다 자라고 있습니다. 오른쪽 2~3시 방향 새까만 부분은 그 오른쪽 돌멍이가 천장위에 매달려 있어 저게 바로 살아 있는 돌멍이로 매년 0.2~0.3m 까지 자랍니다. 돌이 석양 노을에 꽃같이 아름답게 보인다 해서 돌석(石)자 꽃화(花) 석화굴이라고 합니다.
7	슬픈여	오른쪽 큰 바위는 부모님 바위고 작은 바위는 칠형제 바위입니다.
8	칼바위	다음은 어디로 가느냐 홍도 유지이자 홍도의 강물 홍도의 돛대 바위 칼바위로 갑니다.
9	유방바위	오른쪽 3시 방향에 봉긋한 두 개의 바위섬이 붙어 있어 젖무덤처럼 생긴 바위는 유방바위예요. 유방바위는 젖무덤 바위, 쭈쭈바위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천치신명님의 장난인가 모양이 짝짝이니 깃곳은 남신이 유방바위를 만들어 놓고 한쪽만 애지중지하며 만졌는데 너무 많이 만진 쪽만 유달리 커져 그만 짝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방바위를 신의 섬 또는 신의 바위라고 하며, 홍도 주민들은 매년 음력 정월 초하루 유방바위에서 풍어와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는 용왕제를 지냅니다.
10	물개바위	오른쪽 3시 방향 거대한 물개 한 마리가 있어요. 물개 바위 거대한 물개가 앉아 있습니다.
11	병풍바위	오른쪽 3시 방향 홍도의 동남풍을 막아주는 태풍바위가 있습니다.
12	상투바위	자 오른쪽 쪽에 상투를 틀어 놓은 모습 같다고 하여 상투바위 또한 옛날에 재를 지낼 때 천제 밑에 두었던 촛대바위라고 하는데 촛대바위 10번만 해볼까요?
13	기둥바위	기둥바위로 저 기둥이 무너지면 홍도가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14	시루떡 바위	자 우리 홍도를 방문하신 여러분께 감사의 표시로 시루떡 한 시루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시루떡 바위가 있습니다. 눈으로 맛있게 드십시오.
15	주전자바위	주전자 바위는 지난해 태풍에 주전자 뚜껑이 날라 갔습니다.
16	공작새 바위	우측에서 보면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자상과 같다고 합니다. 좌측에서 하늘을 날아오르는 듯한 형상의 공작새바위라 한다.
17	곰바위	곰 같이 생겼죠?



가지를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설명하며, 소요시간은 약 5분정도이다.

홍도의 지형·지질 관련 내용은 홍갈색의 기암절벽 해변과 물속의 기암절벽으로 한정되어 있다. 기암절벽이란 기이하게 생긴 바위와 괴상하게 생긴 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기암절벽만으로 홍도의 지형·지질을 설명하기에는 학문적·전문적 정보 전달이 미흡하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홍도의 지형 형성 과정을 포함시킨다면 홍도 10경을 한층 더 깊이 있게 이해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홍도 10경과 그 외 경관에 관한 선상해설을 아래 표와 같이 재구성 하였다.

과도가 출렁이는 선상에서 충분한 자연해설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선상해설 역시 암석의 형태(shape)와 전설에만 의존하고 있어 아쉽다. 또한新安군 문화관광과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행책자의 전설과 유람선 선상해설의 전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선상해설 중 해설자는 홍도가 여자의 섬이라고 부르는 이유에 대해 탐방객들에게 질문한 후, 홍도에는 150개의 구멍이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도 해 준다. 해설자의 재미있는 질문을 통해 파랑의 차별 침식이나 염풍화로 형성된 해식동의 특징을 쉽게 풀어 나갈 수 있는 질문이었다. 또 다른 질문으로는 3시 방향 바위가 빨갛게 나타나는 이유를 물었다. 탐방객의 다양한 답변이 나왔으나 해설자는 철분이 많이 함유되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해 주었다. 풍화 과정에서 남은 철분으로 인해 바위가 붉게 된 현상을 집안의 쇠붙이가 붉게 녹스는 과정에 비유하여 철의 산화과정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질문이었다. 두 질문 모두 지형 형성과정에 탐방객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질문이었지만 단답식 대답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주민의 지형·지질 교육을 통해 구조화된 선상해설이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독립문바위와 남문바위, 칼바위는 선상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인물사진을 찍어주는 장소로만 이용될 뿐 경관 해설 없이 지나쳐 버렸다. 홍도의 대표적인 경관에 의미를 부여 하지 못하고 단지 상업적 목적으로만 이용되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지형·지질 경관을 지역주민의 소득창출과 함께 관련 해설이 잘 공존하는 공간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홍도는 뛰어난 해양 경관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꼭 가보고 싶은 섬으로 꼽히는 등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홍도 유람선 선상해설 50분 중에 지형·지질 관련 설명은 5분여 남짓이다. 선상해설 내용은 기암괴석의 형태와 전설에 의존하고 있고 자연해설 수준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 4. 지오투어리즘 요소를 반영한 홍도의 선상해설

매년 50만 명이상이 방문하는 홍도는 남해의 소금강이라 불리며, 유람선으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돌아보는 것이 관광의 백미(白眉)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홍도를 방문하는 수많은 탐방객들에게 지형·지질적 특성을 반영한 지오투어리즘적 선상 해설을 제공하는 것은 큰 의의를 지닌다.

우선 지오투어리즘적 유람선 선상해설 시 고려해야할 점은 홍도의 지형·지질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정확한 지식을 탐방객들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지형·지질 설명이 너무 학문적이고 전문적이어도 해설자나 탐방객들에게도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다.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탐방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설을 제작한 사례로 강원도 정선의 테일러스 해설판을 제시할 수 있다. 테일러스의

표 5. 강원도 정선의 자연경관 해설판 내용

테일러스 경관지
테일러스 : 가파른 낭떠러지 밑이나 경사진 산허리에 고갈(talus) 모양으로 쌓인 흙모래나 돌부스러기
형성과정 : 우리나라가 빙하기일 때 바위가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깨진 모난 돌들이 오랜 시간 사면을 따라 쌓임
테일러스 형성지역 : 강원도 정선군 동면일대, 경북의성 빙계계곡 일대, 충북 괴산 쌍계계곡 입구 등



그림 5. 강원도 정선의 테일러스 해설판 및 경관 (2010년 촬영)

정의와 형성과정을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누구나 알기 쉽게 제작하였으며, 탐방객들이 경관감상과 함께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분량이다. 단지 돌무더기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지형·지질·지식적 지식을 추가하여 지오투어리즘의 의미에 부합되는 자원으로 재탄생되었다.

홍도 유람선 선상해설도 탐방객들이 관광을 통해 편하게 느낄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을 선정하여, 전체 선상해설과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지오투어리즘적 관점에서 새로운 선상해설을 제시해 보았다.

홍도는 남해의 아름답고 특이한 기암괴석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곡차곡 수평으로 쌓여 형성된 모래로 이루어진 사암 퇴적층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지각운동을 받은 후 퇴적면이 기울어지거나 수직으로 바다 위에 솟아 나와 기암괴석의 절경을 이룹니다. 홍도의 해양 지형은 퇴적층과 수직으로 갈라진 균열된 틈에 해당하는 절리 사이에 파랑의 침식과 염분 등의 작용으로 조각된 예술품입니다. 파랑은 암석의 단단한 부분은 덜 침식시키고, 약한 부분은 많이 침식시켜, 암석을 차별적으로 깎아냅니다. 또한 바다 속 소금이 오랜 시간 암석 속으로 들어가 암석을 잘게 쪼개는 역할을 하는데 이를 소금 염(鹽)자를 써서 염풍화라고 합니다.

유람선에서 보이는 바닷가 절벽 바위를 해식애라고 하며, 해식애 아랫부분은 파랑의 침식작용으로 만든 동굴로 파도가 바위의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깎아 내어 만들어진 것으로 해식동굴이라고 합니다. 바다의 굴뚝으로 해석되는 시스택은 바위의 모양 때문에 보통 촛대바위, 돛대바위, 칼바위라고 부릅니다. 남문바위나 독립문바위처럼 암석 가운데가 뿔뿔이 찢어진 암석을 시아치라고 합니다. 기암괴석의 퇴적 층리면과 수직절리의 공간을 이용하여 원추리 꽃이나 강풍으로 인해 성장이 억제된 소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마치 바다 위에 육지의 분재공원을 옮겨 놓은 듯한 홍도 지형·지질 경관의 신비로움을 감상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홍도1경에 해당되는 남문바위는 홍도1구에서 남향으로 맨 처음 나타나는 자연경관으로 도승바위, 병풍바위, 물개바위, 탕건바위, 돛대바위, 형제바위 등 6개의 분리된 시스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저에 솟아 있는 이 6개의 암괴들은 원래는 홍도 자체와 연결되었던 지역이지만 차별침식과 풍화작용으로 분리되어 만들어진 경관입니다. 홍도 2경인 실금리굴은 수직 해식애와 10여개의 소규모 해식동굴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홍도 3경 석화굴은 좌우 두 개의 동굴로 이루어진 해식동굴로 동굴내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좌측 동굴에는 석화 즉 돌꽃 이라고 하여 동그런 돌기둥이 천장에 달려 있는데 이를 석순이라 하며 100년에 약 1cm씩 성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홍도 4경 탑섬은 수직으로 형성된 균열선 퇴적면 사이사이에 형성되어 파괴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탑섬의 서북측에는

별집모양으로 파인 타포니(별집바위)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염풍화처럼 타포니(별집자위)도 소규모 의해서 암석이 부서지고 쪼개져서 해안절벽에 생긴 크고 작은 구멍입니다. 홍도 5경 만물상은 30m폭의 해식에로 사암의 퇴적 층리면 사이로 적색을 띤 타포니(별집바위)가 나타나 태양의 위치에 따라 색상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서해안 최고의 조각공원으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홍도 6경 슬픈느는 간조시에는 7개의 암괴들이 서로 하나의 기반암층으로 연결되어 해수면상에 노출되고 있지만 만조시에는 서로가 분리되어 독립된 모양을 이루고 있어 엄마와 7남매의 이별의 아픔을 표현하는 전설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홍도 7경 자연수중 부부탑은 해식동과 시스택의 조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홍도 8경 독립문바위는 북쪽에 위치함으로서 북문이라고도 하는데 서울 서쪽의 독립문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석문의 형성은 퇴적층 사이사이의 수직절리가 파랑의 침식, 염풍화 등에 의해 약한 부분이 떨어져 나간 시아치 지형입니다. 홍도 9경 거북바위는 마치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올라오는 거북의 모습과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암석의 조직과 구성이 자연적으로 차별침식과 풍화를 받아 형성된 지형으로 홍도의 수호신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홍도 10경은 보는 위치에 따라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모녀상, 공작새바위 및 장군여 라고 불리며 역시 파랑의 차별침식과 풍화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그 외의 경관으로 홍도를 지탱하고 있는 기동바위는 3개의 해식동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시루떡바위는 수백개의 퇴적층리들이 겹겹이 쌓여 있으며 전체적으로 지층이 접히는 습곡작용을 받아 구부러진 형태를 하고 있으나 비교적 퇴적층의 형태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홍도의 지형·지질이 만들어진 시간의 흔적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홍도 자연경관을 이해하는데 기본이 되는 퇴적층과 수직절리, 파랑의 차별 침식, 염풍화 등에 의해 형성된 해식애, 해식동, 시스택, 시아치 같은 지형들은 자연해설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개선된 선상해설에서는 지형·지질 자원에 관한 자연 해설을 10분정도 분량으로 하여 홍도 경관의 전체적인 틀을 설명하고, 홍도 10경 중 3개의 경관 정도에 지형·지질적인 해설 분량을 첨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너무 많은 과학적 정보는 관광객들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경관 3개소만을 선정하였다. 홍도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도 시간이 지날수록 침식이나 풍화가 진행되면서 색다른 경관을 만들거나 또는 사라질 것이다. 탐방객들에게 이러한 변화를 인지시켜 지형·지질 자원을 보존·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 또한 지오투어리즘의 중요한 역할이다.

## 5. 결론

천연기념물 170호로 지정된 홍도 유람선의 선상해설을 사례로 분석하고 전문적인 해설을 첨부하여 지오투어리즘 입장에서 새로운 해설을 제안하였다. 신안군 문화관광과에서 발간한 여행안내책자에 실려 있는 각 경관 설명은 전설과 암석의 형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http://www.visitkorea.or.kr>)에서 홍도 8경 가운데 하나인 독립문바위를 검색한 결과 충남 태안군 신진도의 가의도,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의 방축로 마을, 울릉도 동도의 동단부에서도 독립문바위로 불리는 곳이 있었다. 시스택의 경우 동해안 여러 지역에서도 훗대바위로 불리는 지형이 출현하고 있다. 이는 일반 사람들이 시아치를 독립문바위 또는 구멍바위로 부르며, 그 외에도 시스택을 칼바위, 돛대바위 또는 훗대바위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형태만을 고려해 붙여진 이름은 홍도 외 다른 지역의 시아치나 시스택에서도 고유명사처럼 사용된다. 하지만, 외국에서 시스택에 붙여진 지명의 사례로 제시한 Ball's Pyramid와 Lot's Wife처럼 그 지역을 기념할만한 지명을 붙여주거나 주변지형 자원의 고유성을 나타내는 이름을 붙여준다면, 지역의 특성화된 관광자원이 될 뿐만 아니라 지오투어리즘의 가치와 의미도 부여되는 것이다.

홍도 유람선의 선상해설은 50분 정도 소요되는데 자연경관의 해설은 5분 남짓 분량으로 학문적

· 전문적 정보 전달에는 미흡하였으며, 해설 수준도 비교적 낮았다. 앞으로는 매년 홍도를 방문하는 50만 명의 학력수준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탐방객들에게 지오투어리즘적 선상 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유람선 선상해설은 탐방객들에게 관광을 하면서 편하게 느낄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을 선정하여, 전체 선상해설과 균형을 이루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지오투어리즘적 관점에서 유람선 선상해설을 제시해 보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해설을 담당하는 주민에 대한 교육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오파크 도입을 위한 필수적인 지오투어리즘 활성화 방안으로는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방안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해설자와 안내자 양성 교육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거문오름의 경우가 참고할 만한 사례가 되고 있다. 그 곳을 지키고자 하는 주민들의 참여 의식이 활성화되면서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관리되며, 해설 역시 자연해설 교육을 받은 지역 주민에 의해 예약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거문오름 사례는 지오파크 개념에도 잘 부합되며, 지오투어리즘의 선진 사례로 좋은 사례가 된다.

아직은 국내 지오파크와 지오투어리즘이 걸음마 수준이지만, 국내의 지형·지질 유산은 국토 면적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기초사된 자료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지형·지질 대상은 2,000여 곳이 넘는다고(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3). 전국적으로 지오파크 후보지로 활용 될 수 있는 지형·지질 자원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존 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자원을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자연 경관을 보존·보호하며, 지오투어리즘으로 활성화시키고 더 나아가 지오파크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여겨진다.

## 문헌

고의장, 1998, 홍도의 자연경관에 대한 관광지형학적 분석, 세종대학교 논문집, 자연과학대학원 15(2), 29-30.

- 김창환, 2009, 한국에서의 지오파크 활동과 지리학적 의미, 한국지형학회지, 16(1), 57-66.
- 박경, 이해미, 2009, 백령도의 보존가치가 높은 지형과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응용지리, 28, 77-89.
- 이수재·김지영·이영준·사공희·이은재, 2008, 한국의 지질유산 정보구축 및 관리 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7-16.
- 이수재, 2009, 유네스코 지질공원의 특성과 시사점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전영권, 2005, 지오투어리즘(Geo-tourism)을 위한 대구 앞산 활용방안,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1(6), 517-529.
- 허철호·김성용, 2005, 관광지리학 활성화를 위한 지질 및 지형경관자원 개발에 관한 연구-내장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자원환경지질, 38(3), 355-367.
- 허철호·김성용·윤성택, 2005, 오대산 국립공원의 지질 및 지형경관자원 조사를 통한 관광지질학적 가치 증진: 지구과학의 대중적 이해, Jour. Korean Earth Science Society, 26(3), 218-231.
- 홍성조·유호상, 1997, 홍도·흑산도 지역의 지형경관, 홍도 흑산도 자연환경보고서, 2-31.
- 최정수, 2003, 생태관광과 로컬 거버넌스, 한국경제지리학학회지, 6(1), 236-237.
- 신안군 문화관광과, 2004, 섬·섬·섬·천사(1004)의 섬 신안 여행, 44-49.
- 제주특별자치도, 2009,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교육자료.
- 제주도특별자치도, 2009, 세계지질공원 신청대상지 학술조사 보고서.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05, UNESCO 지정 World Geopark 선정을 위한 National Geopark 개발 연구, 34-36.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3, 보존 가치가 있는 지형·지질의 대상 설정에 관한 연구, 33-45.
- Edmund Bernard Joyce, 2010, Australia's Geo-heritage: History of Study, A New Inventory of Geosites and Applications to Geotourism and Geoparks, *Geoheritage*, 2(1), 39-40.
- THOMAS A. HOSE, 2008, Towards a history of geotourism: definitions, antecedents and the

future. *Geological Society Special Publication*,  
300(1), 37-39.

유네스코 세계지오파크 홈페이지 [http://www.glo  
balgeopark.org](http://www.globalgeopark.org)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http://korean.visitkorea.or.kr>

신안군청 홈페이지 <http://tour.shinan.go.kr>

홍도유람선협업(주) 홈페이지 <http://hongdoro.com>

(접수: 2010.11.7, 수정: 2010.11.28, 채택: 2010.12.22)